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4월 11일(음력 2월 24일) 수요일 (주간) 제 623 호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동국대 재학
조계종 스님

처우 개선 시급

기숙사 백상원 · 혜광사 비 새고 붕괴위험…"장학금제도 불합리"

조계종 종립대학 동국대에 재학중인 조계종 스님에 대한 처우가 미약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은 종비생들의 기숙사인 화계사내에 위치한 백상원과 평창동 혜광사의 열악한 시설. 종비생들에 따르면 33명이 거주하는 비구 스님 숙소인 백상원은 1991년 완공 후 부실시공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수에 화학물질인 에폭시가 섞여 나오는가 하면 건물 자체 방수시공을 하지 않아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비구니스님 13명이 거처하는 혜광사는 상황이 더 안좋다. 누수로 복도, 천장, 실내벽면에 물이 흘러내리고 장마철마다 수행관 내부와 주변의 배수시설 미비로 보일러실 수각장이 잠긴다. 심지어는 경사면이 50도~60도 가까이 되고 건물이 낡아 붕괴우려마저 있다.

석림회 회장 혜공 스님은 "호화로운 시설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마음 편히 공부와 수행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3월 28일 열린 제 173회 임시 중앙종회에서 '종비생 수행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기숙사 문제는 장학금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등록금의 70% 면제 혜택을 받는 종비장학생이 되려면 기숙사에 입방하는 방법 밖에 없다. 하지만 시설이 열악하고 방사가 적다보니 현실적으로 기숙사 신청자가 많지 않다. 또한 기숙사가 조계종 기초교육기관의 역할하다보니 입방자 대부분이 불교대학재학중인 사미와 사미니다. 정서상 타과에 다니는 스님이 입방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더군다나 대학원생들은 입방조차 할 수 없다.

동국대의 승려 장학금은 학부와 대학원으로 나뉘어져 있다. 학부 승려 장학금은 불교대학에 100% 편재돼 있다. 불교대학에 다니는 승려는 80%이상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동국대 장학담당 관계자의 말이다. 하지만 불교대학 학생이 아니면 승려장학금 혜택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다. 학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원은 그래도 형편이 조금 낫다. 일반대학원생중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에겐 65%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특수대학원생에게는 상황에 따라 20~40% 정도 차등 지급된다.

이런 현실에 대해 행정대학원에 재학중인 혜안 스님은 "특수대학원의 장학금 제도는 비합리적이다. 공직자에게는 50% 감면 혜택을 주면서 조계종 승려는 30% 밖에 받지 못하며, 동국대 교직원들은 50%이상에서 본교직원인사위원회 추천서를 제출하면 전액 면제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조계종 승려를 무시하는 제도"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동국대 법인사무처장 정안 스님은 "민원이 제기돼 조사해보니 불교대학이 아닌 타 단과대학에 재학중인 스님들에 대한 혜택이 적은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조금 더 진상 조사를 한 뒤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학교당국에 건의해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해인사 스님들의 나무심기 식목일인 4월 5일 해인사(주지 현응 · 오른쪽에서 두번째)는 가야산 자연환경 복원을 위해 고로쇠나무 6년생 1000주와 층층나무 300주, 홍송 200주를 마장동 일원 3000여평의 땅에 심었다. **합천=고영배 기자**

인물經 세상鏡

우리 세상의 진정한 장애는?

죽으러 갔다가 사는 길을 얻은 아이. 그 아이의 어미는 가난과 뇌성마비로 고통 받는 딸을 키울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함께 죽기로 작심했다. 그러나 그냥 죽기 억울했다. 누군가에게 속 시원한 말 한 마디를 듣고 싶었다. 그래야 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모녀는 해인사 백련암으로 성철 스님을 만나러 갔다. 성철 스님은 호되게 꾸지람을 내리셨다. 그리고 절을 하라고 했다. 화가 한경혜(32)의 3000배는 그렇게 시작됐다. 그녀는 절을 하며 죽는 길을 삶의 길로 열었다. 처음엔 한번도 힘겹던 절을 수를 늘려가며 매일 했고 3000배를 100일 간 지속하는 혼자만의 결사도 여러 차례 했다. 절은 그녀를 죽이지 않았다. 뇌성마비를 극복하고 화가로 당당하게 세상에 나서게 했다.

▽기적의 오체투지를 세상에 알려 절 수행 바람을 일으킨 한경혜. 그녀가 인사동에 나타난다. '물 속에서 물을 보다'란 주제의 전시회다.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공화랑에서 여는 그녀의 전시회는 '인간 승리' 운운의 찬사를 원치 않는다. 이미 그런 말들은 그녀에게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녀의 작품은 생명의 근원을 더듬고 있기 때문이다.

▽"할 수 없는 것 보다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했다." 두 다리와 왼팔을 쓸 수 없는 장애에도 불구하고 대학 강단에 선 방귀희씨의 일성. 동국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방송작가인 그녀는 계간 <솟대문학>을 통해 많은 장애인들과 문학의 향기를 나누고 있다. 그녀에게 장애라는 말은 부정 보다는 긍정에 대한 도전을 의미한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한 교사는 말했다. "이런 날이 우리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한다"고. 그러나 그날 하루만이라도 모든 사람이 우리 세상의 진정한 장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임연태 기자**

<PR>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실물크기(3.5×5.0cm) / 금강경 24매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 혜거 스님 '무엇을 믿고 의지하나' 4월 18일 오후 7시 광주 KT센터

"하와이서 영어공부해요"
제4회 하와이 영어연수 · 문화체험캠프

현대불교신문사는 제4회 하와이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문화체험캠프(http://hompy.buddhapia.com/homepy/hawaii)를 개최합니다.

- 참가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기간: 7월 26일(목)~8월 14일(화)(19박 20일)
- 참가비: 280만원(여권, 비자수수료 별도)
- 정원: 선착순 40명
- 참가신청: 1차= 3월 15일~ 4월 20일
  2차= 5월 1일~ 5월 30일(참가비 5% 인상)
-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하와이 무량사
- 후원: (재) 보덕학회
- 주요프로그램
  - 어학연수: 하와이주립대 영어교육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브라이언, 데니 선생님과 총 60시간 수준별 강의.
  - 문화체험: 폴리네시아민속촌 관람, 비숍박물관 관람 및 훌라쇼 체험, 하와이왕국 이올리나 궁전 탐방.
  - 역사체험: 사탕수수농장 방문, 진주만 탐방, 펀치볼 국립공원 참배.
  - 자연체험: 와이키키해변 수영, 다이아몬드 헤드 등반, 팔리바람산, 외이메하공원.
  - 문화특강: 매일 한 시간씩 영어와 한국어를 병행해 '국제화 시대 다양한 문화이해 강의' 실시.
- 참가문의: 박병용 팀장 (02)720-1868/ 010-6318-1976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후원 계좌 :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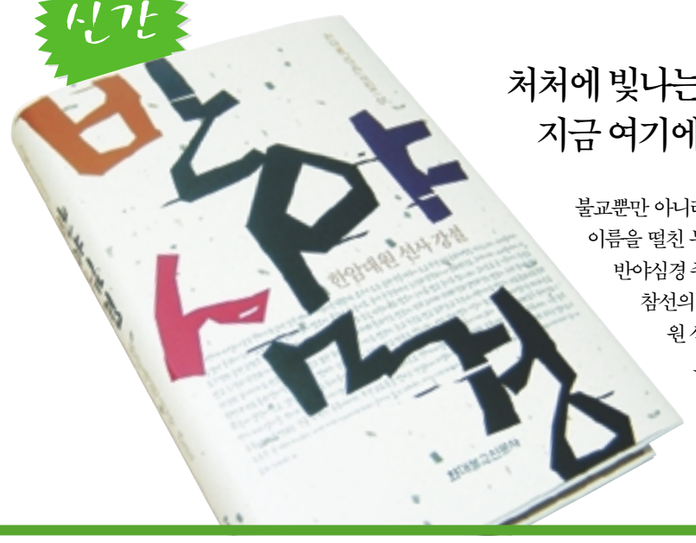
I Love Buddha /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용정운(www.zentoon.com)

현대불교경전시리즈 .01 현대불교신문사

팔만사천 법문의 골수이자 핵인 반야심경
마침내 대중의 가슴에 꽃으로 피어나다

신간



처처에 빛나는 반야 지혜의 눈이 소리 없는 몽둥이를 내리쳐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봄바람을 일으킨다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와 유교까지를 두루 섭렵, "원전에 매이되 매이지 않는" 반야심경 주해로 이름을 떨친 무구자 도인은, 일정한 거주지도 없었고 행적도 묘연했지만, 속장경에 실린 그의 반야심경 주해는 오랜 동안 공부하는 스님들과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참선의 생활화, 대중화를 위해 오등시민 선원을 개원, 감로의 문을 활짝 열어 온 한암대원 선사의 활달자재한 강설이, 어느 페이지를 펼치더라도 곧바로 진리의 법 한가운데로 뛰쳐들도록 촉구한다.

한암대원 강설 / 현대불교신문사 펴냄
신국판 / 양장본 / 440쪽 / 값 15,000원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한암대원 선사의 반야심경 강설

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
한암대원 開庵大元 선사

1942년 경북 상주 출생, 1958년 상주 남장사로 출가하여 혼해, 고봉, 석릉, 관응, 호경 스님 등으로부터 일대시교를 이수한 후 혼해 스님에게서 전강을 받음. 그 후 상원사, 동화사, 해인사, 불국사, 통도사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정진, 고암 스님으로부터 전법. 1986년 옛 제석사 터에 학림사를 세우고 납자를 위한 오등선원과 일반 불자들을 위한 시민선방을 열어 현재 선불교 대중화에 진력.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Tel:02)2004-8219, Fax:02)737-0696